몸뚱이는 주인 없는 물건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㉖ 사대(四大)

"여러분, 그대들은 꿈과 허깨비 같은 몸뚱이를 잘못 알지 말아야 한다. 더디거나 늦거나 간에 무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니라.

그대들은 이 세계 가운데 무엇을 찾아 해탈하려 하는가? 그저 밥 한 숟가락 찾아 먹고 누더기 꿰매 입고 시간 보내기보다는 우선 선지식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라. 엄벙덤벙하면서 쾌락을 쫓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아껴야 하느니라. 생각 생각이 덧없어 거칠게는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이 덧없고, 미세하게는 생(生) · 주(住) · 이(異) · 멸(滅)의 네 가지 모습이 핍박해 오고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 · 수 · 화 · 풍의 네 가지 모양 없는 경계를 깨달아 알아서 그 경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라."

사대(四大) 육신의 몸을 '몽환반자(夢幻伴子)'라 하여 이 몸이 꿈과 허깨비 같아 조만간에 무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몸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꿈속에서 또 꿈을 꾸지 말라는 말이다. 서산대사의 삼몽사(三夢詞)를 생각하게 한다.

主人夢說客 주인을 꿈을 손님에게 말하고
客夢說主人 손님은 꿈을 주인에게 말하네
今說二夢客 지금 꿈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나그네여
亦是夢中人 꿈속의 사람이 꿈 이야기 하는구나

금강산을 내려와 길을 가던 서산대사가 도중에 있는 어느 주막집 바깥 마루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주막 안에서 주인과 손님이 서로 자신이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상대에게 들려주는 것을 엿듣고 지은 즉흥시이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면 꿈은 깨고 볼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제는 허망한 육신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하였다. 그리고 무상(無常)을 말하며 시간을 아껴 정진할 것을 대중에게 주문하였다. 무상에도 찰나무상과 일기무상이 있다. 지 · 수 · 화 · 풍 4대를 말한 것은 일기무상에 속하고 생 · 주 · 이 · 멸 4상은 찰나무상에 속한다. 또 무상은 식심생멸(識心生滅)의 경계이다. 상(相)이 없는 공(空)을 깨달으면 무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구마라습의 수제자였던 승조(僧肇) 법사는 벼슬을 맡아 달라는 왕명을 거역했다가 31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유명한 임종게(臨終偈)를 남겼다.

四大元無主 사대는 원래 주인이 없고
五蘊本來空 오온은 본래 공한 것일 뿐
將頭臨白刃 칼날이 내 머리 내리치겠지만
恰似斬春風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으리라.

사대와 오온은 사람의 육체와 정신이다. 내 몸뚱이가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는 말이다. 마음이니 정신이니 하는 것도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란 말이다. '칼날이 내 목을 내리쳐도 봄바람을 베는 것에 불과하리라' 고 한 이 말에서 생사를 초월한 공의 달인임이 느껴진다.

승조는 묘공(妙空)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것은 상대적 공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이라고 주장하여 유(有)를 포함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이치를 천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공에 대하여 철저한 이론을 내세운 그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수보리처럼 해공제일(解空第一)이라 불리었다.

〈반야심경〉에서도 '오온개공(五蘊皆空)' 을 설하여 일체의 상(相)을 부수고 있다. '사대가 공하고 오온이 공하다' 는 것은 깨달음을 향하는 불교 수행의 중요한 관문이다. 공(空)을 통달해야 반야를 얻는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禪三宗 삼교 경론에 의거 회통



세상 속 경전읽기

㉖ 공성상(空性相) 선교삼종(禪敎三宗)

종밀(宗密 · 780년~841년)은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에서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제창하였다. 곧 수많은 선종(禪宗)의 갈래를 공 · 성 · 상(空 · 性 · 相)의 삼종(三宗)으로 통합분류하고, 교종(敎宗) 또한 공 · 성 · 상의 삼교(三敎)로 분류한 후, 선삼종(禪三宗)을 교삼종[敎三宗. 곧 삼교(三敎)] 경론에 의거해 회통한 것이다.

달마대사가 동토에 선종을 전파한 이후, 중국에서 선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당나라 때 황실과 귀족의 비호를 받으며 번창하던 교종이 점차 쇠퇴하고, 자급자족을 추구하며 지방 신흥관료의 지지를 받던 선종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에 선종에 수많은 종파가 생기고, 각 종파 간에 자기가 전수 받은 종지(宗旨)만을 국집(局執)하고, 다른 종파를 폄훼하는 사상적 대립이 난무하였다.

종밀은 "일체중생의 본각진성(本覺眞性), 곧 불성(佛性), 심지(心地)가 선의 근원[禪源]이며, 이를 깨닫는 것이 혜(慧)이고, 이를 닦는 것이 정(定)이어서 정혜를 통칭해서 선(禪)이라 한다"고 하였다. 참성품[眞性]이 선의 바탕[體]이며 참성품이 미혹되어 번뇌를 따르면 산란하다고 하며, 번뇌를 떠나 참성품에 합일하면 선정(禪定)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성(本性)을 직접 논하면 참[眞]도 망녕된 것[妄]도 아니고, 등지거나[背] 합일할 것[合]도 없고, 선정도 산란도 아니니, 선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성품[眞性]은 선의 근원뿐 아니라, 만법의 근원인 법성(法性)이고, 중생 미오(迷悟)의 근원인 여래장(如來藏)이고, 모든 공덕의 근원인 불성(佛性)이고 보살만행의 근원인 심지(心地)이다.

"지극한 도는 귀일(歸一)하니 참뜻은 둘이 아니므로, 마땅히 둘로 나뉠 수 없다. 지극한 도는 (양)변(邊)이 아니고, 궁극의 뜻[了義]은 치우치지 않으니, 한 쪽만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하나로 회통시켜 모든 가르침이 원만해 막힘이 없어야 한다." [至道歸一精義無二°不應兩存°至道非邊了義不偏°不應單取°故必須會之爲一令皆圓妙°]

〈禪源諸詮集都序 T2015_.48.0400c13-15〉

선종의 각 분파가 선의 근원에서는 같은 것이나, 사람의 집착[我執 · 法執]이 개입되어 서로 어렵게 다투니 나를 버리고 법에 따를 일이다.

"법을 사람에 따르게 하는 까닭에 어려운 것이요, 사람을 법에 따르게 하면 쉬운 것이다."

[謂以法就人即難。以人就法即易。]

〈禪源諸詮集都序 T2015_.48.0400c18〉

선삼종(禪三宗)은 다음과 같다. 불성을 덮고 있는 무명[망념]을 수행으로 소멸하는, 식망수심종[息妄修心宗. 상종(相宗)]은 신수의 북종 등이 있다, 본래 공적하여 의지할 어떠한 것도 없다는 가르침인 민절무기종[泯絶無寄宗 · 공종(空宗)]은 혜능의 남종 등이 있다. 제법(諸法)이 바로 진성의 표현이나 진성은 무위로서 그 체(體)가 곧 제법은 아니어서 범성(凡聖), 인과(因果) 선악(善惡)도 아니나, 제법을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인 직현심성종[直顯心性宗 · 성종(性宗)]은 홍주종과 하택종 등이 있다.

교삼종(敎三宗)의 밀의의성설상교[密意依性說相敎 · 상종]는 법상종이 있고, 밀의파상현성교[密意破相顯性敎 · 공종]는 삼론종이 있고, 현시진심즉성교[顯示眞心卽性敎 · 성종]는 〈화엄경〉, 〈열반경〉 등의 예가 있다.

"요점을 들어 말하자면, 국집(局執)하면 바로 모두가 그릇되고, 회통하면 바로 모두 옳으니, 만약 붓다의 말씀으로 각기 그 뜻을 나타내고 각자의 장점을 받아들여, (선종을) 삼종(三宗)으로 통합하여 (붓다의 가르침에 의거한) 삼교(三敎)에 배대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들을 회통시켜 일대 선교방편을 삼아 요긴하고 묘한 법문을 함께 이루어, 각자의 정실(情實)을 버리고 함께 지혜의 바다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붓다의 설(說)한 바만이 곧 다르면서 같기 때문에, 불경을 기준으로 해서 셋을 회통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禪源諸詮集都序 T2015_.48.0400c21-25〉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⑫ 닦음의 길 12

정진에도 중도가 필요

군대 훈련병 시절 종교 활동으로 불교를 선택했는데, 이유는 단순했다. 법회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잠을 3~4시간밖에 잘 수 없는 형편이라 먹을 것으로 유인하는 개신교나 천주교보다 불교가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훈련소 마지막 법회 시간에 갑자기 수계식을 하는 것이었다. 얼떨결에 연비를 하고 법명도 받았다. 그때 받은 법명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불교에 입문한 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계(戒)를 받았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님께 부탁했더니, 지금 필명으로 쓰고 있는 일야(一也)라는 법명을 주셨다. '하나' 라는 뜻도 있지만,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이랴, 이랴!' 가 된다. 소가 가지 않을 때 채찍질을 하면서 내는 소리로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법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글을 쓰거나 책을 출판할 때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육바라밀 가운데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이다. 이는 팔정도의 정정진(正精進)과 다르지 않은 실천으로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이다. 정진은 열반의 언덕으로 향하는 대승호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엔진의 힘이 좋아야 배가 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수행 에너지가 충분해야 깨침의 언덕에 이를 수 있다. 출가 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정진했던 붓다의 경험에서 나온 덕목이다. 그런데 정진에도 중도(中道)의 실천이 필요하다. 수행의 힘이 약하면 피안으로 향하는 배를 움직일 수 없고, 반대를 지나치게 힘을 가하면 과부하가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배가 순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의 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다.

붓다는 출가 후 당시의 유행에 따라 6년 간 혹독한 고행을 하게 된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행을 실천했지만, 돌아온 것은 망가진 육체와 정신뿐이었다. 붓다가 고행을 버리고 중도를 선택한 이유다. 이런 경험은 제자를 가르칠 때도 매우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제자 중에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공부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수행을 그만두려 했지만, 붓다는 소나가 출가 전 거문고를 잘 탔던 사실을 알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소나여, 거문고와 마찬가지로 수행도 너무 지나치면 마음이 격앙되어 조용하지 못하고, 또 너무 느슨하면 게으름에 빠지게 되느니라. 따라서 소나여, 그 중도를 취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소나는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중도를 설명할 때마다 예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다. 중도란 한마디로 '적절함' 이다. 더운 여름날에는 가볍고 얇은 옷이 적절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이 옷 입는 중도다. 일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는 휴식이 중도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도다.

중국 고전인 〈장자〉에 이런 우화가 나온다. 그림자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림자가 자꾸 자신을 따라오자 이것을 떨쳐내려고 더 빨리 달렸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빨리 뛰어갈수록 그림자는 더 빨리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바로 그늘이나 건물 속으로 들어가 쉬는 것이다. 이것이 중도의 지혜다.

중도라는 시선에서 보면 열심히 한다는 것과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 다르다. 붓다가 고행에서 중도로 방향 전환을 했던 이유를 잊지 말기로 하자. 그는 지나친 것이 아니라 중도에 입각한 바른 정진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붓다의 마지막 유훈 역시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당부였다. 그것이 대승에 이르러 정진바라밀로 해석된 것이다.

붓다가 지나치게 편리하고 감각적인 것만 좇고 있는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 했을까? 자신은 버렸지만, 현대인에게는 고행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게으름에 빠진 우리에겐 고행이 중도이니 말이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채찍질해본다.

'이랴, 이랴!'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